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6 March_ Vol.158





Cover story

춘래여진춘을 바라며,
건강한 성장을 이뤄가다!

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출발, 행복한 희망을 주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불황 때문인지,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요즘입니다.

핀란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은 말뚝도 봄이 돌아오면 푸른빛이 되기를 희망한다.’

삼정KPMG는 이 찬란한 봄, 고객 여러분과 희망을 안고
건강한 성장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춘래불사춘이 아닌
봄이 오니 진정 봄 같다는 ‘춘래여진춘(春來如眞春)’이 되길 바라며
고객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Contents

March 2016 Vol.158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Global Frontier**
중국 경기둔화, 우리 기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06 **Team Spirit**
삼성KPMG Global Business Center
- 08 **Client+**
동원홈푸드
- 10 **Market Reader**
소비재,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인가?
지연시킬 것인가?
- 12 **Excellence Report**
CEO COLUMN / AUDIT

행복한 일터

- 15 **Culture Relay**
사랑하는 삼성인을 칭찬합니다!
- 16 **Talk! 연결고리**
삼성KPMG 사내부부를 소개합니다!
- 18 **이색삼정★**
삼성KPMG의 진정한 주짓때로!
- 20 **Purpose Story**
'Our Higher Purpose!'
- 22 **가자 세계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말레이시아
- 24 **행복충전소**
Oh Happy Day! 가족과 함께 보낸 잊지 못할 추억들
- 26 **Samjong News**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
성황리 개최 외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디자인 홍보팀(02-2112-7567) 제작·인쇄 네오메디아(02-512-1666)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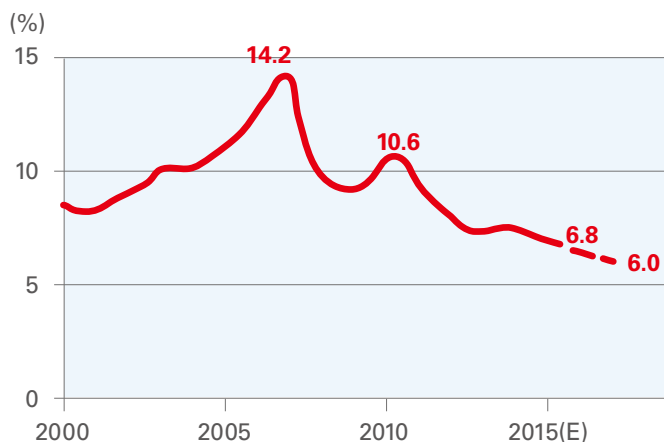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둔화, 우리 기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중국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경제 둔화의 배경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이 대처할 방향이 무엇인지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봤다.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Source: 중국경제통계국, IMF

I 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국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한때 1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이 6%대의 성장률로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와 소비도 함께 주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하고, 해외 투자은행들은 심지어 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급속하게 하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 성장의 주된 배경에는 '굴뚝경제'가 있다. 즉,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제조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가공 무역의 형태이다.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굴뚝경제식 성장 배경이다. 그러나 중국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굴뚝경제의 경쟁력

을 잃게 되었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2000년 48.5%에서 2014년 32.7%로 축소됐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인건비가 더 저렴한 베트남, 미얀마 등 신흥국으로 점차 공장을 빼앗기고 있다. 더욱이,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전략으로 자국 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진흥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굴뚝경제는 쇠퇴하고 있다. 제2의 부흥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고 만 것이다.

I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신창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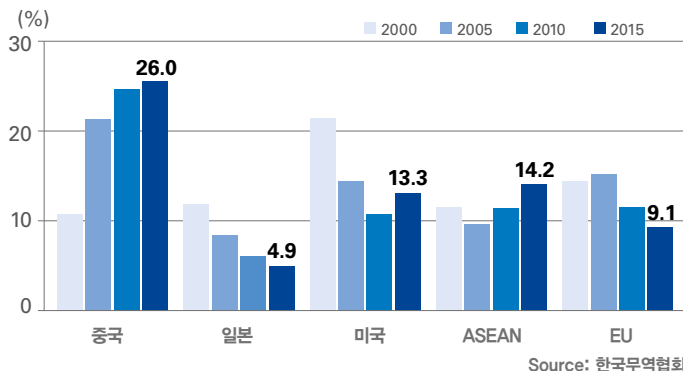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창타이(New Normal)¹⁾'를 주창했다. 고속 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속 성장기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배경에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있다. 그동안 매출액이 매년 급증하는 기업들은 부채에 의존해 설비투자를 늘렸지만,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 유휴설비가 많아지는 과잉설비 현상이 나타났다. 신창타이의 주요골자 중 하나는 경제구조를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즉, 소비와 투자를 확대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려 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하이테크 제조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I 시름 커진 韓, 수출-산업구조 변화로 위기 극복하자

중국 경제 불안은 한국 경제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총 수출의 26.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13.3%, 일본 4.9%, EU 9.1%, ASEAN 1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불안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수출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20일 통관실적 기준 수출은 221억6,000만 달러

한국의 주요국별 수출 비중 추이



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이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8월(-20.9%)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 경제회복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우리나라 수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중국 이외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중국의 부상하는 소비에 부응하기 위한 소비재 수출 진흥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중간재 수출의 경우 범용 중간재에서 고부가·고기술 중간재 중심의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한국의 주력산업에도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주력산업들은 점차 잠식되고 있다. 1980년대 운동화, 의류 등의 경공업이 주력산업이었지만 2000년대 중공업으로 도약한 것처럼, 2020년대를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구조 개혁하고 있듯, 우리나라는 '중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하면 기회가 되고, 안주하면 위협이 될 수 있다.

1)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고도성장기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의 중국식 표현이다. 성장률은 예전만 못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신경제기조다.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Tel. 02 - 2112 - 7438

E-mail, gwangsukkim@kr.kpmg.com



기업 세계화 돕는 글로벌 종합솔루션 서비스팀

삼성KPMG Global Business Center

지난해 삼성KPMG는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Global Business Center(이하 GBC)를 출범했다. 지금부터 해외진출 기업 및 희망 기업에 글로벌 종합솔루션 서비스를 제공 중인 GBC를 만나본다.

I 국내 기업 해외진출 '불', 경험 풍부한 지역 전문가 필요

국경 없는 시대,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기·전자, 금융, 게임, 유통, 에너지 등 그 산업 분야도 다양하다. 경쟁이 더욱 심화된 국내 비즈니스 환경과 원가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동반하는 해외진출은 현지 시장 및 정치, 경제 환경, 세제, 문화, 언어 등의 차이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칫 국내 원기업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외진출에 대한 확실한 목적과 철저한 사업성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단기적 성과가 아닌, 실현 가능한 장기적 목표가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진출 국가의 다양한 특성과 국내 환경과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현지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세제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이해를 수반해야 한다.

셋째, 현지 진출 시 가장 큰 어려움은 현지의 다양한 환경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 사정에 밝은 현지 전문가나 조력자의 도움이 절대적이며,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서 사업 운영 단계까지 발생 가능한 다양한 Risk에 대해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I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GBC

해외진출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 및 자문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사는 제한적이다. 이에 삼성

KPMG는 해외진출 희망 기업의 진출 계획 단계부터 실행, 사업 운영 단계까지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Global Business Center(GBC)를 출범했다.

삼성KPMG는 그동안 전 세계 주요 국가 KPMG Office에 Korea Desk를 설립해 한국의 전문가를 파견, 현지에 진출 예정이거나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입 및 정착을 지원해왔다. 현재도 23개국 29개 도시에 36명의 전문가가 파견되어 현지 한국 기업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 중이다.

또한, 2014년에 멕시코 Korea Desk를 설립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새롭게 터키 Korea Desk를 설립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삼성KPMG의 GBC는 Korea Desk에 파견 중인 현지 전문가와 Korea Desk 파견 이후 귀임한 법인 내 지역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등 각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외진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GBC를 통해 삼성KPMG는 해외진출 계획, 실행, 현지에서의 사업 운영 단계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전문가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고객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외진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 최고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기업 세계화 선도할 것!

시시각각 변화되는 경제 흐름 속에서, 현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적시적기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가 필요하다.

삼성KPMG GBC에는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수년간 현지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든든한 지역 전문가들이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전 세계에 걸친 KPMG Global Network와 각국의 Korea Desk 파견자들과의 협업으로 한국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힘써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GBC의 노력으로 많은 한국 기업이 해외진출 성공을 이루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해본다.

GBC가 제공 중인 해외진출 단계별 서비스

진출 계획 단계

- 입지선정 자문
- 투자인센티브 협상 지원
- 현지 실사 지원
- 시장조사/진출환경 분석, Legal 및 규제
- 추정손익 및 타당성 분석
- Business Model 수립

진출 실행 단계

- 진출 형태 결정 및 해외 법인 설립
- 사업여건 분석
- 재무적 성과,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
- 조세/세무 관련 업무 수행
- 가치평가 수행
- 합병 Master Plan 수립
- 통합법인 합병 시너지 창출 자문

사업 운영 단계

- 해외법인 Operation 진단
-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및 내부 경쟁력 진단
- 핵심 전략시장 공략 방안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 현 시스템의 Process 분석 및 개선안 정의
- Global 표준 Template 설계 및 구축
- ERP 구축 및 Interface 설계

한국 내 지역 전문가



삼성KPMG GBC

Contact Us

신경철 전무 (팀 리더)

Tel. 02-2112-0788
E-mail, kshin@kr.kpmg.com

이윤섭 상무

Tel. 02-2112-0169
E-mail, yunseoblee@kr.kpmg.com

한혁 부장

Tel. 02-2112-7598
E-mail, hyukhan@kr.kpmg.com

윤효돈 차장

Tel. 02-2112-3449
E-mail, hyodonyoon@kr.kpmg.com

김남우 위원

Tel. 02-2112-3197
E-mail, namwookim@kr.kpmg.com



국민 건강을 최고 가치로 삼고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하는 종합식품유통기업 동원푸드

종합식품기업 동원푸드는 고객에게 최고의 맛을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푸드서비스, 식자재 유통, 식품제조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국민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새로운 식생활과 식문화를 선도해 최고의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동원푸드를 만나본다.

|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기업이 되기까지

1993년 6월, 푸드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동원푸드는 식자재 유통, 식품제조, 외식프랜차이즈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 2015년에는 가정 간편식 소핑몰인 'Healthy Recipe 차림'을 론칭하고, 온라인 축산물 유통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금천'을 인수하여,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성장에 힘쓰고 있다.

국민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하는 종합식품유통 기업으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는 동원푸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토대로 국내 최고의 종합 식품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1993년에는 단체급식사업을 시작하여, '좋은 음식과 보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醫食同源(의식동원)의 경영방침을 기반으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관공서, 병원, 기업체, 산업체 등에서 급식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업장의 특성에 맞춘 인테리어와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엄격한 식재료 관리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균형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7,0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표준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에는 삼정KPMG 구내식당 '정원' 오픈식을 갖고, 건강을 담은 식단과 심을 안겨주는 인테리어로 삼정KPMG 가족들의 맛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신선한 음식으로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원푸드 물류센터



동원푸드의 사회공헌 활동 모습

또한, 동원푸드는 2009년 시화유통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호남, 영남에 물류센터를 오픈하며 식자재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룹사 통합구매를 통한 높은 구매력과 전국규모의 물류인프라, 고객과 현장 중심의 영업활동으로 차별화를 구축하여 동원푸드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온라인 축산물 유통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금천'을 인수하여 축산물 상품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으로 채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식자재 유통 사업부문의 경쟁력 업그레이드에 힘쓰고 있다.

2014년 국내 최고의 조미식품 전문기업인 삼조셀텍과의 합병을 통해 식품제조 설비까지 확보하게 된 동원푸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삼조셀텍은 국내 최대규모의 조미식품 제조설비를 기반으로 소스, 드레싱, 씨즈닝, 프리믹스, 향료 등 식품 원료 및 완제품을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유통회사, 식품제조업체 등 1,000여 개의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특히 1993년 설립된 식품과학연구소는 업계 최고의 연구인력과 오랫동안 쌓아온 맛 노하우, 3만 개 이상의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어, 제품의 개발부터 제조, 유통까지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 맞춤형 제품과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식품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맛과 품격을 지닌 외식문화를 선도하다

동원푸드의 외식사업은 홈메이드 스타일의 샌드위치와 국내에서 로스팅한 신선한 원두로 만든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커피 전문점 '샌드

프레소'와 다양한 이탈리아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캐주얼 이탈리아 레스토랑 '라운지디/라운지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라운지디/라운지오'는 오픈 키친에서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 갓 만든 요리를 눈과 입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맛과 품격이 있는 외식문화창조를 목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식사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Healthy Recipe 차림'은 온라인 가정편의식 전문브랜드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의 특별하고, 간편하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 손질한 신선한 식재료를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건강한 집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영하는 쿡클래스에서 개발된 균형잡힌 메뉴를 'Healthy Recipe 차림'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메뉴의 신뢰도를 높였다.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 필요기업

동원푸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 필요기업'이라는 동원그룹의 비전을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업장별로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사랑나눔 봉사단'은 매달 서초구에 위치한 장애우 교육시설을 방문하여 HMR조리실습과 운동,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식품사업자로서의 특성을 살린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재,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인가? 지연시킬 것인가?

수출의존형 성장전략, 이는 한국이 혁신적 성장을 이룩해온 방법이다. 새마을운동 시절 뭉든지 열심히 만들어 팔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조선, 철강 수출 세계 1위국으로의 위상을 떨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던 수출이 침체되고 있다. 한국 수출을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수출업계에 드리워진 먹구름

한국의 수출침체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하락하고 있다. 수출 증감률은 2014년 3분기 3.6%에서 2015년 1분기 -3.0%, 2분기 -7.3%, 3분기 -9.5%, 4분기 -11.9%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5년 1분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0.7%로,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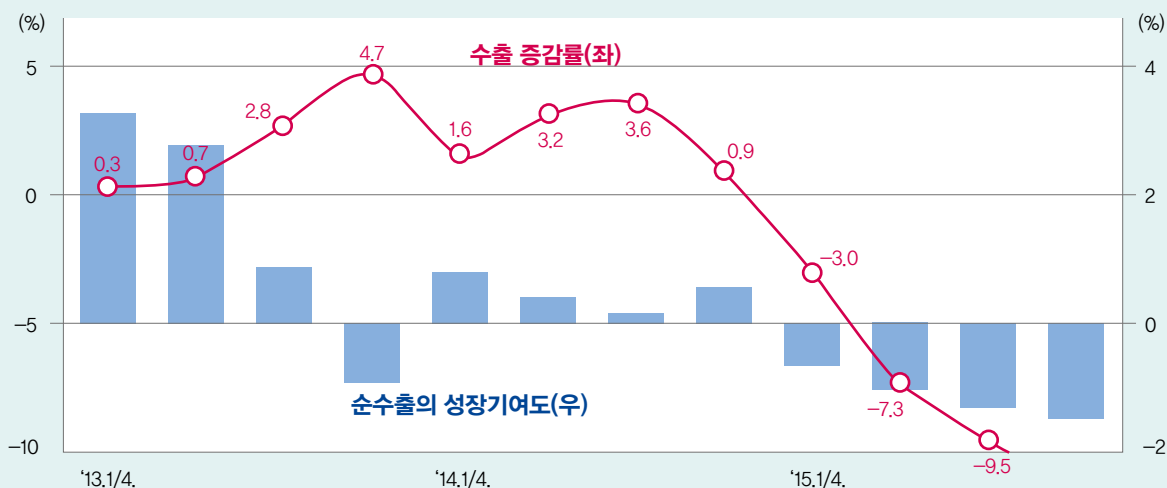
-1.1%, 3분기 -1.3%로, 수출침체가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부진하다. 한국의 13대 주력 수출품목들은 대부분 2016년 1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선박,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들은 2015년 한 해 동안 수출이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들어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중간재는 신흥국들의 성장세 둔화로 공급물량이 감소되고,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수출도 낙관적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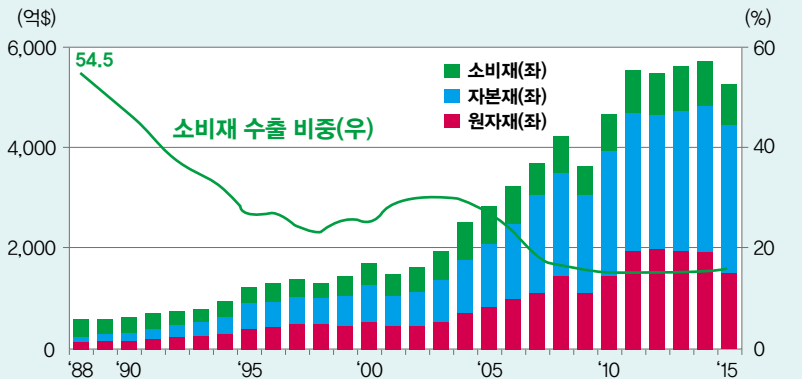
특히, 2016년에는 소비재의 수출대상국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는 반면, 중간재 수출의 주요 대상국인 신흥국들과 자원 보유국들은 경기 부진이 전망된다.

한국의 최근 수출동향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한국의 성질별 수출액 및 소비재 수출 비중 추이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소비재 수출 역시 크게 축소되어 왔다.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재 수출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성질별 수출액 추계가 시작된 1988년 한국의 총 수출액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4.5%로 과반을 차지했으나, 이후 급속하게 축소되고 2015년 현재 15.6%에 이른다. 소비재 수출액 규모도 2014년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14년 882억 달러에서 2015년 824억 달러로 감소되었다. 주요국의 소비재 수출 비중을 비교해 보아도 중국 29.8%, 프랑스 29.8%, 독일 26.0%, 미국 16.7%로 한국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소비재 수출로 한국 수출 견인하자

장기화된 수출침체 속에서 소비재로 한국 수출을 견인할 수 있다. 침체된 수출 시장에서도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소비재 품목들이 있다. 2011~2015년 동안 과자류와 음료수는 각각 13.6%, 11.6%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내 식품 제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해나가면서 수출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또한, 화장품 수출은 소비재 수출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세도 매우 높아 소비재 수출액 증가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1~2015년 동안 화장품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37.3%에 이르렀다. 한류 영향을 받은 중국, 홍콩 등 외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선호를 갖고 한국 화장품의 소비를 확대했다. 화장품과 더불어, 목욕용 제품, 두발용 제품, 비누류 등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2011~2015년 동안 목욕용 제품 수출규모는 연평균 38.6% 증가하였고, 두발용 제품도 29.4%, 비누류도 27.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출 상승세 위해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 지원 필요

변화무쌍한 시점에는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품목별로 주요 수출대상국을 확인하고, 수출 규모가 급증하는 시장을 선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자류는 UAE를 중심으로 수

출이 급증하고 있고, 음료수는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품목별 수입이 급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채널과 마케팅 수단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적합한 대상국을 선정하고, 대상국에 적합한 마케팅 접근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요부족 현상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출에 영향을 받는 대외 변수들을 파악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제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환율변동,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 각국의 소비 활성화 정책 등 세계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 소비재 제조사들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장 모니터링 기능 및 수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내수시장에 머무는 유망 소비재 제조사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도 있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 온라인쇼핑 채널 입점 지원, 소비재 수출대전, 코리아브랜드 & 한류상품박람회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Contact U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
Tel. 02-2112-7438
E-mail, gwangsukkim@kr.kpmg.com

기후변화 시대, 새로운 기회다



삼성KPMG CEO 김교태

지난 12월 파리에서 진행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끝난 후,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 및 전망을 제시하는 다채로운 기사 및 분석자료가 있었다. 하지만 정작 기업의 관점에서 이번 협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다가오는 기후변화의 시대는 준비된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전 지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결책은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하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관련된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 기업은 아직 해외 기업 대비 기후변화와 연관된 산업을 주도할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GE와 필립스, BMW 등 해외 기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기후변화라는 색채를 입힌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자사 사업의 매력도를 높이면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는 에너지자립성 모델 등은 국내 기업의 사업 전략에 부합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비즈니스 모델이다.** 실제 향후 기후변화 사업의 중추적 재정 지원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의 최초 사업에 에너지자립성 모델을 적용한 사업이 포함되기도 했다. 기후변화 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번 협상에서 결정된 또 다른 중요 사항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5년 주기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실적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는 이를 위한 국가 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적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입장에 놓여있다. 국내에서만 이미 500여 개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역시 구축했다. 향후 관련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당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향후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수도 설비 개선, 해수 담수화 등 수자원 관련 산업과 관개설비 구축 등 농업 관련 산업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와 직접 연관돼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후기금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가적 리스크이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 공공자금 성격의 국제기후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국제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 시장이 연간 1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이제는 이런 기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규모 시장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기후기금을 활용할 때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기고문은 2016년 1월 15일 자 조선비즈 '김교태 경영산책' 코너에 기고되었습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금융상품 기준서(IFRS 9)의 도입과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B&F본부 신재준 상무이사



자본시장의 국경이 사라짐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요구했으며 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이 마련됐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7년 3월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4년간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그로부터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기간 국제회계기준은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와 정보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지속적인 제·개정 과정을 거치며 변화해왔다. 지난 2014년 7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신규 기준서가 제정되었는데,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가 그것이다. 이 기준서는 ‘2018년부터 국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회계기준(US GAAP)의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를 개선하고 단순화하여 양 기준서를 합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그 출발점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에서 촉발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G20 정상회의와 다수의 이해관계자집

단으로부터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 39 금융상품’ 대한 비판과 새로운 회계기준서의 요구가 있었다.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IAS 39)가 ‘복잡’하고,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실제 발생 가능한 손실보다 ‘작게 그리고 지연하여 반영’했으며, ‘경기순응성을 조장’하는 등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것이 주요 비판 내용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전까지 재무제표상 별 문제가 없어 보였던 Fannie Mae · Freddie Mac · Merrill Lynch · Bear Stearns · AIG · Lehman Brothers 등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 유럽 등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공적 자금을 받는 등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무너졌었다.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는 이러한 경험과 비판을 반영하여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을 ‘단순화’하고, 대출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대손충당금 산출 및 측정 방법 등을 ‘정교화’하여, ‘조기에 그리고 충분히 인식’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상품을 주로 보유·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는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 적용 준비에 있어 현재의 비즈니스, IT 시스템, 프로세스 등 수준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신규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를 회계계수의 산출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Compliance 준수로 접근하기보다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구성·운용, 신용평가, 여신실행 및 사후관리, 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전반에서 고도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Talk! 연결고리

 이색삼정★

 Purpose Story

 가자 세계로!

 행복충전소

 Samjong News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정재훈 S.Analyst가
이성욱 상무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프로페셔널함과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신
상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Deal Advisory1본부
정재훈 S.Analyst



칭찬주인공

Global Tax본부
이성욱 상무



안녕하세요. Deal Advisory1본부의

정재훈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를

칭찬해주신 IM2본부의 한대근 매니저님께

감사합니다. 칭찬을 받고 난 뒤에 타 본부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칭찬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분을 생각하다가 이성욱 상무님이 떠올랐습니다. 연차도 낮은 제가 감히 이성욱 상무님을
칭찬주인공으로 추천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상무님을 보면서 느꼈던
존경심과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추천하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Deal Advisory1본부와 Global Tax본부는 실사 프로젝트에서 Co-Work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욱 상무님을 처음 본 것도 PE 고객을 위해 실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때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보고 때마다 고객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수시로 던지는데, 그럴 때마다 상무님은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한 톤으로 설명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성욱 상무님의 설명을 들으면, Tax 업무 경험이 없는 저조차도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급하게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는 몸과 마음도 지치는데, 만나
볼 때마다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이성욱 상무님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을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성욱 상무님에게 영화 <쿵푸팬더3>를 추천합니다. 상무님께서 업무로 인해 항상
바쁘시겠지만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휴식 같은 시간이 있으면
상무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휴식 같은 영화를 즐기시길 기대하며, 다음 프로젝트 때
이성욱 상무님을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성욱 상무에게 영화 <쿵푸팬더3>를 추천합니다!’



<쿵푸팬더3> 2016 / 애니메이션, 액션, 어드벤처 / 제작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쿵푸팬더3>는 드림웍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의 세 번째 시리즈로, 5년 만에 귀환한 주인공 포가 친부 리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
다. 할리우드 스타 잭 블랙, 안젤리나 졸리, 더스틴 호프만, 성룡, 세스 로건 등이 더빙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Deal Advisory2본부
홍지호 S.AnalystGlobal Tax본부
염윤정 S.SeniorIM2본부
서민혁 ManagerMCS2본부
유우연 대리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삼성KPMG 사내부부를 소개합니다!



〈Talk! 연결고리〉는 법인 내에서 공통분모로 모일 수 있는 삼성KPMG 가족을 만나 공감 토크를 진행하는 신규 칼럼이다. 이번 호에서는 로맨스가 꽃피는 계절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삼성KPMG 사내부부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똑 부러진 일만큼이나 멋진 사랑의 결실을 본 서민혁 Manager와 유우연 대리, 홍지호 S.Analyst와 염윤정 S.Senior 부부를 소개한다.

I 사랑의 시작,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

홍지호: 저희 부부는 입사 동기인데요,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한 3개월은 쫓아다니며 고백했는데, 그렇다고 스토커로 오해하 시면 안 돼요.(웃음) 물론 아내도 싫지만은 아닌 눈치란 걸 알았으니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염윤정: 저는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남편이 자주 본인의 매력을 어필 하더라고요. 저도 호감은 있었죠. 한데, 첫 사회생활이기도 하고 사 내연애를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남편의 담백한 성격과 헌신에 끌려 지금은 7개월 차 부부가 되었네요.

유우연: 사내연애를 시작하기까지 마음 열기 쉽지 않죠. 저 역시도 남편과 2년간 알고 지낸 친한 동료였어요. 서로 연애 상담도 하고, 소개팅도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막역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주말에 밥을 먹자는 거예요. '왜 주말에? 혹시 그린 라이트?'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서민혁: 하하, 일종의 '그린 라이트'였죠. 법인 체육대회를 마치고, 동료끼리 맥주 한잔 하자며 길을 나섰는데, 아내가 노점상에서 쿨을 사 는 거예요. 검정 봉지에 쿨을 담고 와서는 하나씩 나눠주는데, 간

알고 지낸 것과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소탈하고 순수한 매력에 끌리기 시작했어요.

유우연: 그러다 한강으로 불꽃놀이를 보러 갔는데, 남편이 수줍게 고백했고 저도 마음을 열게 됐어요. 물론, 사내연애가 부담스러웠지만,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때부터 비밀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I 사내부부, 이해와 공감으로 쌓은 믿음

염윤정: 저희도 비밀연애였어요. '우리 사귀다'고 말하기 부끄러웠어요. 또 연인이란 게 만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일을 안 하고 연애만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고요. 때문에 저희 부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는 여느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즐겼고요. 물론 법인 근처에선 절대 데이트 안 했어요. 하하

홍지호: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잖아요. 한 번은 퇴근하고 신당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본부 과장님과 마주친 거죠. 둘 다 화들짝 놀라서, 당황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둘의 사이를 눈치채셨어요. 물론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셨고, 그 부분에 무한 감사한 마음이지요.

서민혁: 저희도 여러 번 눈에 띄었죠. 경복궁에서 커플 셀카를 찍고 있는데 바로 뒤에 법인 분이 계셔 놀라 도망친 기억도 있고, 또 한 번은 서로 생일 선물을 골라주다 퇴사한 동료에게 들키기도 했어요.

홍지호: 비밀연애 얘기 하나만 사내연애가 마냥 안 좋을 것 같은 편견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서로의 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더 좋아요. 야근과 출장이 잦은 일들이라, 배우자가 서운할 일도 많을 텐데 저희는 오히려 힘이 되어주죠.



입사 동기로 시작하여 부부의 연을 맺은 홍지호 S.Analyst와 염윤정 S.Senior

서민혁: 무한 동의합니다. 요즘 특히 감사시즌이라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집에 들어가요. 육아와 일에 힘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지요. 만약 아내가 제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서로 힘들었을 거예요.

유우연: 남편이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배려심 많은 아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급여나 성과금을 디테일하게 잘 알기에, 남편이 비자금 같은 걸 만들기 쉽지 않아 아내로선 그게 또 좋네요. 이건 모든 아내들이 공감할 거 같은데요? 하하

I 내 배우자는 000이다!

홍지호: 아내는 제게 '클라이언트'예요. 제게 언제나 갑인, 소중한 존재죠. 연애 당시, 남자 동료들끼리 모여 누가 예쁜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내 얘기가 몇 번 나왔고, 속으로 굉장히 뿌듯했죠.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착한 아내를 꼭 닮은 예쁜 딸도 낳고 잘 살아가고 싶어요.

염윤정: 제게 남편은 '비타민'이에요. 삶의 활력을 더해주고, 언제나 힘이 되는 비타민 같은 존재죠. 지난해 새롭게 Tax 전문가라는 꿈을 품고 NCP(New Challenge Program)로 현재 본부로 오게 됐어요. 노력해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성과금도 많이 받아 2017년 내 집 마련을 이뤘으면 해요. 더욱이 남편의 든든한 지지로 대학원 진학도 계획하고 있으니 잘해낼 수 있겠죠?

유우연: 제 남편은 그 어떤 액수도 능가하는 '백지수표'처럼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죠. 앞으로도 일에서나 가정에서나 멋진 아빠가 되기를 응원할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요.

서민혁: 믿음직한 남편이라니, 썩스럽네요. 제 아내는 회사 일부러 육아까지 척척 해내는 '홍반장'이에요. 영화 <홍반장>처럼 무슨 일이든 아무지게 해내는 모습이 닮아서죠. 앞으로도 함께 정빈이 잘 키우며 행복한 가정 꾸려가고 싶어요. '여보, 바쁜 시즌 끝나면 우리 가족 여행 가서 오붓한 시간 보내자!'



오랜 동료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가 된, 사내부부 서민혁 Manager와 유우연 대리

삼정KPMG의 진정한 주짓테로! Deal Advisory4본부 강정현 S.Analyst

“속 시원하게 브라질 유술 한판 어때요?”

한국의 태권도, 일본의 유도, 태국의 무에타이가 있다면 브라질에는 주짓수(jiu-jitsu)가 있다. 관절을 꺾고 조르기는 기본이라는, 듣기만 해도 살벌한(?) 주짓수를 즐기는 삼정인이 있어 만나보았다. 바로 강정현 S.Analyst, 그가 폭 빠진 주짓수의 매력은 무엇일까?



주짓수 블루벨트 승급 기념 사진



상대와 치열하게 스파링 중인 강정현 S.Analyst.

| 주짓수는 매트 위의 장기(將棋)!

“유도, 검술, 주짓수 중 주짓수를 택한 것은 옳은 일이었어요.” 유도와 검술은 익히 들어 알지만, 주짓수라니? 마니아들 사이에서 주짓수에 대한 관심은 뜨겁지만, 아직 대중들에게는 생소하다. 강정현 S.Analyst는 입사 이후, 헬스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들이 쑥쑥 빠져나가는 허무함과 급격한 체력의 저하로, 새로운 운동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법인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살펴보다 주짓수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유도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짓수가 일본의 유도 기술과 브라질의 실전 격투 기술이 합한 유술이라는 것을 알고 이왕 배우는 거 실전 기술까지 연마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그는 한 손에는 회사 가방, 한 손에는 도복을 들고 퇴근 이후에는 곧장 도장을 찾았다. 매트 위에서 얹치락뒤치락 상대방과 기 싸움을 벌이며 기술을 배워갔다. “처음에는 암바, 초크 등 수업에서 익힌 멋진 기술들을 바로 스파링 상대에게 활용하고 싶어서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였죠. 마음만 앞서다 보니, 힘은 금세 빠지고 스파링에서 제 실력이 발휘가 안 됐어요. 그때 깨달았죠. 무엇이든지 기본이 중요하구나!” 주짓수는 포지션 싸움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취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땀 흘리

고, 부대끼며 두 사람 간의 수 싸움을 하는 것, 그래서 강정현 S.Analyst는 주짓수를 ‘매트 위의 장기(將棋)’라고 정의 내렸다.

| 흘린 땀만큼 얻는 것은 ∞

매트 위에서 흘린 땀만큼이나 그는 삶의 새 활력을 얻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퇴근 후 술자리보다 운동을 즐길 수 있어 몸도 건강해졌단다.

“보통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운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운동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고, 상쾌해짐을 느껴요. 특히, 주짓수로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을 자극하니 걸만큼이나 몸속도 튼튼해지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주짓수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몸을 부대끼며 하는 운동이다 보니, 체육관 형들과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사실, 형들 나이가 40~50대로 각 회사에서는 저보다 직급도 높은 분들인데 매트 위에서는 그냥 너무나도 편한 형, 동생이에요. 그게 참 매력적이에요. 매트 위에서는 사회적인 직급도 나이도 중요치 않은 거죠. 가끔 제가 너무 장난쳐서 형들이 상심할까 두렵긴 하지만요.”

지난해 말, 강정현 S.Analyst는 블루벨트로 승급했다. 그가 처음 주짓수를 시작할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다른 것이다.

“주짓수도 태권도처럼 띠로 급이 나뉘어있어요. 다른 점은 화이트벨트에서 블루벨트로 바로 승급이 되는 게 아니라, 색마다 그 띠가 매겨져 4그랄을 채워야 승급할 수 있기에 띠의 색이 바뀌기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블루벨트로 승급했을 때 정말 기뻐요. 하지만 요즘은 승급에 대한 욕심보다 주짓수 자체를 즐기고, 더 알아가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웃음)”

| 일과 삶,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성공한 경영자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한다고 해요. 항상 일에 몰두해야만 생산성이 높은 게 아니란 거죠. 누구나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일에 갇혀서 자유로운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쉽게 떠오르지 않죠.”

강정현 S.Analyst는 예전에 무심코 읽은 기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런 그가 생각하는 일과 삶의 균형은 무엇일까? “저는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생활이 퇴근하고 집에서 일찍 자고 쉬는 것만은 아닌 듯해요. 업무 이후, 본인만을 위한 생산



블루벨트를 어깨에 메고 환하게 웃음 짓는 강정현 S.Analyst.

트래킹 중 에베레스트 앞에서

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도 쌓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져요. 친구들과 함께한 첫 해외여행에서 스킨스쿠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바닷속에 펼쳐진 아름다움도 맛보지 못했겠죠.”

주짓수 외에도 스킨스쿠버, 여행, 사진, 트래킹 등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가는 똑똑한 삼정인, 강정현 S.Analyst. 앞으로도 그가 법인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또 이번 기회로 주짓수를 배워가는 삼정KPMG 가족의 소식도 들려지기를 기대해본다.



강정현 S.Analyst가 주짓수 입문자에게 전하는 Tip!

1. 기본에 충실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 선점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첩한 움직임과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2.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임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나, 동등한 체격이 아닌 상대와 스파링을 할 때도 두려움 없이 배운다는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임하다 보면 진정한 주짓테로가 될 수 있습니다.

3.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지내세요.

함께 땀 흘리는 분들과 친밀하게 지내면 다양한 분야에 속한 사람들과의 대화로 넓은 시야도 지니고 친목도 형성돼 즐겁게 주짓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기술 공유도 되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삼정KPMG에서 만난 동료와 선배 중 남다른 취미 활동과 흥미로운 경력을 소유한 이색삼정스타를 소개해주세요. <Channel>에서는 신규 칼럼 '이색삼정스타'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생활하는 삼정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해주시는 삼정인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문의 BD&Markets 홍보팀 김수지 대리

sujikim@kr.kpmg.com/ 02-2112-7567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Our Higher Purpose

2016년에도 삼정KPMG는 일의 가치를 부여하고, 행복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한 Purpose Journey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임직원의 Purpose를 공유하며,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Purpose와 마주하려 한다.

What do you do at KPMG?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듯이

제가 금융회사의 매니저로서 자문업무를 수행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맡았던 회사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임직원과의 거래를 통해 일반 거래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회사의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과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미 다수의 거래가 존재하는 데요. 뭐. 관세관청이 설마 발견 하려고요.” 이를 맡은 세금 관련 직원들의 태도는 안일하다 못해 방만했습니다. 향후 세무조사 시 임직원에게 저가로 제공한 용역 및 재화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임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의견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의견서에 적출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과 부당행위계산을 피해갈 방법을 포함해달라고 지속 요구했습니다.

고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들어주기에는 그 방법과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이었습니다. *“쓴소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 그러나 지금 지적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방향으로 고객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가합니다. 이런 방법은 옳지 않아요. 재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왜 이러한 방법이 정당하지 않은지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FS Tax 김충원
S.Manager



향후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유형이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세법에 근거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임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회사 담당자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끝내 저의 간곡한 설득에 동의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당시 세법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작성된 의견서를 임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담당자는 임원에게 정확한 세무 리스크를 설명할 수 있었고,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회사 담당자는 삼정KPMG가 적절한 조언을 해줘 임원에게 좋은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진정 도움이 되는 세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 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군요. 다 회계사님 덕분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디쓰지만, 결국 몸에 도움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서 굴하지 않고, 쓰디쓴 약을 권유했던 나의 노력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낳게 된 셈이었습니다.

KPMG, We're here for a Purpose.

What do you do at KPMG?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이어서 교과서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A화재 차세대 플랫폼 전환 프로젝트를 맡은 후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A화재는 '차세대 플랫폼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이전, 'Mainframe 기반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Mainframe 기반 시스템은 오픈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많은 현업과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유형/무형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정KPMG는 본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오픈'이라는 주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초기 Set-up 과정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A사 내부의 현업과 현업, 현업과 관리자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선행 프로젝트의 아픈 경험이 마음의 문을 닫게 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벽'이 존재한 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적인 측면이나 삶의 행복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이든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현업에서 오신 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연봉이 오르거나 평가가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꿈과 가족의 꿈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를 힘을 실어 말하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인터뷰를 끝낸 후 자리에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일을 진행하면서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A화재 CIO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일에만 집중을 했을 뿐이지 실제 그 일이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사의 직원과 인터

MCS1본부 박형만
Director



뷰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여 오픈하는 시스템이 비단 업체의 수익성이나 참여 주체의 이익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님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인 존재로서 그 가족의 희망이나 꿈까지도 투영될 수 있음을 오늘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선행 프로젝트에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직원들 중에는 진실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진심이 CIO에게 전달되길 기대하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주간의 시간에 갑자기 말을 꺼낸 사람은 CIO였습니다.

"현재 우리 프로젝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동안 깊게 고민했습니다. 최근 삼정KPMG의 박형만 이사로부터 매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CIO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말 동안 산행을 하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내가 직원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참여자들이 행복해지는가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컨설턴트와 일을 해보았지만, 이토록 고객 입장에서 진실되게 고민하고 의견을 전달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후로 CIO는 각 업무 영역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부서 팀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눴고, 업무 팀원들도 그에 대한 소통의 문을 조금씩 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된 마음들이 모여 조금씩 조금씩 A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는 저의 느낌은 기술적인 이슈 해결과 성과물을 내어 성취감을 느꼈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미 프로젝트의 양적인 성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된 마음과 마음이 만나 서로를 움직였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였음을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었으니까요.

KPMG, We're here for a Purpose.

말레이시아 Korea Desk 민은옥 Manager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말레이시아

전 세계 30여 개국 Korea Desk 에 파견된 삼성KPMG 가족들의 소개로 각 나라의 생생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는 <가자 세계로>. 이번 호에서는 민은옥 Manager의 안내로 여러 민족이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다민족국가 말레이시아를 만나본다.

다민족국가 말레이시아의 관용 문화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양성과 관용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여 기원전부터 중국, 인도와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원후 약 1100년경 이슬람교가 전파된 후

불교 및 힌두교와 자연스럽게 공존하여 오다가 이슬람이 국교로 지정된 뒤에도 말레이계를 제외한 그 외 민족들에게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족 구성면에서는 말레이계(62%), 중국계(22%), 인도계(7%)가 대다수를 이루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주도하며, 각 민족은 긴 세월을 거쳐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법

을 체득해왔습니다.

민족 간에 갈등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변에는 민족, 종교, 문화적 다양성 위에 설립된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의 존치와 번영을 위해서 상호존중과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안정된 정치 환경과 타 문화에 대한 관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야경.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도 보인다.



방적인 문화는 외국인이 말레이시아에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며, 다채로운 문화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국가공휴일만 보아도 잘 드러납니다. 국교가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의 디파발리(Deepavali)와 타이푸삼(Thaipusam), 유교와 불교 문화권의 추석과 음력설, 석가탄신일(Wesak Day) 그리고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에 이르기까지 주요 민족의 다양한 명절을 인정하여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고 그들의 문화와 뿌리를 국민 전체가 함께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범국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켜야 할 비즈니스 에티켓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선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물 내에는 기도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긴 시간 동안 행사나 세미나를 주관하게 되는 경우 이 시간을 고려하여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음식입니다. 이슬람 경전에는 무슬림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람(Haram: 술과 돼지고기, 이슬람 경전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고기 등)과 할랄(Halal: 하람이 아닌 모든 것, 무슬림의 삶 전반에 걸쳐 허용된 것들)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인도나 중국계도 종교적인 믿음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소고기를 먹지 못하거나, 채식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메뉴를 정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처음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기업이 민족

Contact Us

말레이시아 Korea Desk
민은옥 Manager
Tel.
+60377213103
E-mail.
EOMIN@KPMG.COM.MY



1. 2015년 9월, 랑카위 부서 여행 모습. / 2. 매년 설 KPMG 말레이시아에서는 사자춤 행사가 진행된다. 사자들은 높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며 구경꾼들에게 입으로 굴(Kam: 광둥어로 금과 발음이 같아서 번영의 의미를 가짐)을 나눠준다. / 3. 2015 TPP & Asean FTA 세미나(산업통상자원부, KPMG 공동 주관) / 4. 설맞이 저녁식사.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설 당일부터 총15일 간 크고 작은 모임으로 새해를 축하한다. 사진은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샬러드 이상(Yee Sang)을 함께 섞으며, 큰소리로 소원을 비는 모습이다.

과 상황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단기간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문화적인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개방적인 편이므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편견 없는 시선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말레이시아 Korea Desk

말레이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비즈니스 환경, 안정된 정치 상황과 지리적 이점 등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많은 세계적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 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KPMG 또한 역사가 무려 19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2016년 현재 KPMG 말레이시아에는 전국에 걸쳐 9개 Office에 Audit, Tax, Advisory 전문인력 1,9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은 아직

까지 일본이나 중국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최근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OTRA 글로벌윈도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對 말레이시아 투자금액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7억6,425만 달러이며, 신고금액은 110억4,671만 달러에 달합니다. 주요 투자산업 분야로는 전자전자, 석유화학, 기계 및 장비, 금속제품, 광업 분야 등이나,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예 따라 정보통신, 친환경 산업(에너지), 금융 분야로 다변화·고도화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삼성KPMG는 2012년부터 쿠알라룸푸르 및 슬랑오(Selangor) 주를 담당하는 프탈링자야(Petaling Jaya office)에 Korea Desk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현지 KPMG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Korea Desk는 한국 기업에 해당하는 정보와 이슈를 적시에 전달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게 통합된 KPMG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Oh Happy Day!

가족과 함께 보낸 잊지 못할 추억들



무한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부모님을 뵙니다!’

과일바구니에 사랑을 담아 “아빠, 생신 축하합니다!”

Deal Advisory3본부 박세미 Pooling Associate

취업 후, 처음 맞이하는 아빠 생신을 위해 의미 있는 선물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사내 ‘Benefits Program’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 전날이 주말인 덕분에 직접 고른 과일바구니를 들고, 아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빠는 딸이 일하는 첫 직장에서 주는 선물이라며, 어느 생일 선물보다도 좋아하셨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설날에도 과일바구니를 보이며 으쓱해 하시는 아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의미 있는 선물도 보내준다면 뿌듯해 하시는 엄마를 보며,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삼정KPMG의 좋은 프로그램 덕분에 평소 잘하지 못했던 효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법인에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환갑날, 가족모임을 빛내준 꽃바구니

B&F2본부 이주한 Manager

장모님의 환갑을 위한 가족모임에 대해 아내와 이런저런 상의를 하던 중 가족모임에 어울릴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그 자리가 더욱더 빛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때, ‘Benefits Program’ 메일이 전달됐고,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주저 없이 신청했습니다. 역시나 20명이 넘는 가족모임에서 꽃바구니는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꽃바구니를 받으신 장모님이나 지켜보시던 가족들 모두 기뻐하시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한마디씩 건네셨습니다. 좋은 자리,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을 빛내준 꽃바구니를 선물해준 ‘Benefits Program’을 모든 삼정KPMG인들에게 추천합니다.



편안하고 익숙함에 속아 우리는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하지만 돌아해보면 늘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가족이다. 삼정KPMG 임직원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법원에서 지원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결혼, 새 출발의 시작을 '리무진 서비스'와 함께!



양가 상견례날, 기쁨을 안고 달린 리무진

ICE2본부 손영진 S.Senior

지난해 겨울,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로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대구에 계신 부모님께서 상견례 전날 밤에 버스를 타고 상경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부모님께서 주말에 혼잡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면 힘들실 것 같았고, 양가 어른들께서 처음 만나는 부담스러운 자리인 만큼 몸이라도 편하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리무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상견례 아침, 기사님께서 약속시간 보다 일찍 오신 덕분에 가족 모두 여유 있게 약속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놀라시면서도 무척이나 만족해하셨습니다. 덕분에 상견례도 무사히 잘 치르고 오랜만에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RCS본부 김지영 Consultant

인생에서 가장 예쁘고, 행복하고, 특별한 결혼식 날.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예식을 마치고 공항까지 가기에 부족한 시간 탓에 직접 운전하기도, 누구에게 부탁하기도 부담스러운 중에 리무진 서비스를 떠올렸습니다. 믿음직한 삼정 KPMG의 리무진이라면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 시부모님께 '우리 딸, 우리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챙겨주는구나'하는 은근한 뿌듯함을 선물드리고 싶었습니다. 리무진 덕분에 편하고, 빠르게 공항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가장 추운 날, 가장 따뜻한 공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EWS

SPECIAL NEWS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 성황리 개최 국내 기업 및 기관 실무 담당자 600여 명 몰려

지난 2월 17일, 삼정KPMG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세법과 BEPS 세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세기본법 등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1부에서 다루고,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논의에 따른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2부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6 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BEPS 이전가격 문서화 및 제출 의무에 따른 실무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를 중심으로 새

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을 초청해 BEPS 환경 하에서 달라지는 국제조세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삼정KPMG 세무부문 총괄 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그간 많은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성장을 추진해왔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BEPS 세제 도입 등 세정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Contact: TAX 최정욱 부대표 jeongwookchoi@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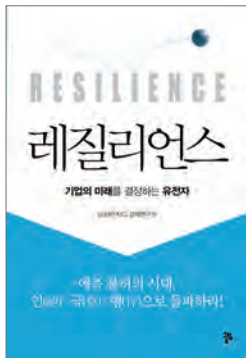


‘기후변화 · 지속가능성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지난 2월 23일 본사에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업의 가치창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후변화 · 지속가능성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 · 환경적 위험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면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 Contact : 기후변화 · 지속가능경영 김정남 이사
jungnamkim@kr.kpmg.com

삼정KPMG, 경제 · 경영 전문서적 『레질리언스』 출간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신간 저서 『레질리언스: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2016년 3월 출간한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불확실성 증대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과 발전의 해법을 찾으려는 기업들의 고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져 가고 있다.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레질리언스(Resilience)’에 있다고 봤다. 레질리언스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Bounce Back)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이전보다 더 전진(Bounce Forward)하여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신간 저서는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認), 극(克), 행(行) 3가지를 꼽고, 이와 같은 역량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석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인지력(認), 도전과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이겨내고 보다 발전하는 극복력(克), 목표와 전략을 위해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이는 행동력(行)의 진정한 의미와 실체를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사랑나눔

삼정KPMG-강남교육지원청 업무 협약식



삼정KPMG는 강남교육지원청과의 사회공헌 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정KPMG의 Deal Advisory 신경섭 대표, 사회공헌위원장 윤학섭 부대표를 비롯해 강남교육지원청의 문종국 교육장, 길산석 교육지원국장, 이상행 행정지원국장, 최호숙 교육복지팀장, 최종석 교육협력복지과장, 서준형 중등교육지원과장, 한선혜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삼정KPMG는 강남구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 · 진로 및 경제교육 특강’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남교육지원청은 원활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내학교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왕중학교, 대치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계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사랑의 국수나눔 봉사활동 가져

지난 2월 13일, 삼정KPMG는 국수나눔 봉사활동을 열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했다. 임직원과 자녀들은 전문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직접 밀가루를 반죽하고 면을 뽑아 국수를 만들었다. 정성스레 만든 국수는 예쁘게 포장하여 봉사관 인근 복지단체와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여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KPMG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KPMG에서 일하고 있는가? KPMG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Purpose는 Why에 대한 것입니다.

Purpose는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을 넘어 사회와 세상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소명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또한 Purpose는 우리의 고객에게 Purpose가 이끄는 윤리적인 조직, KPMG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